제1강 시간의 세 양상

(1교시)

플라톤: 카오스/코스모스와 시간

1. 시간에 대한 무모한 도전

시간은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기괴합니다. 심지어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시간은 가장 익숙합니다. 일체의 삶이 시간에 의거해서 영위되기에 삶의 깊숙한 바탕에서부터 순간적인 삶의 편린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늘 그리고 이미 한 치 빈틈도 없이 삶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가장 기괴합니다. 전혀 사유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발로 밟으려고 하면 발 위로 올라와 발을 뒤덮어버리는 그림자처럼, 사유의 손 안팎을 완전히 채우면서 뒤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사유를 통해 스스로를 사유하는 꼴이 되는 지경을 떠올릴 정도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시간을 사유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사유할 수도 있고, 생리심리학적으로 사유할 수도 있고,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도 있습니다. 신화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사유할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 사유할 수도 있습니다. 시적으로나 회화적으로 즉 예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라는 식으로써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눈 것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사유할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나 생체 시간을 바탕으로 시간의 분할과 지속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의식 활동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생성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결단에 의해 생성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신으로 여겨 생각할 수도 있고, 신의 섭리가 펼쳐지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에 대한 사회적인 규정에 따라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감각의 더없는 응축이 일어날 때 시간이 얼굴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 안팎에서 그저 결코 해명할 수 없는 가장 포괄적인 비의로서 늘 그리고 이미 일체의 존재 방식을 예외 없이 뒤덮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을 철학적으로 사유해 보고자 덤벼든 우리는 어쩌면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사유한다는 것은 삶 전체뿐만 아니라 존재 전체를 건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여느 영역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는 달리 사유 자체의 운명을 건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소광희 선생님이 『시간의 철학적 성찰』이라는 책을 저술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노리는 '수직적 시간'은 결국 예술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만, 그 시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책이 중요한 몇몇 이정표 역할을 할 것입니다.

www.artnstudy.com

(2교시)

2. 시간의 세 양상

시간에 대한 약간의 윤곽을 그리고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느끼고, 느낌만으로는 정확성을 기할 수 없기에 시간을 측정하려 하고,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하기 힘들기에 시간의 성질을 파악하려 하고, 시간의 성질을 생각하다보면 심지어 시간의 방향을 가늠하려 합니다.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우선 기본적으로 시간 자체가 어떤 양상들로 나타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나 공간과 달라서 시간이란 게 도대체 눈에 띄는 방식으로 어떤 양상들을 드러내기나 하는 것인가 하고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선 그저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양상을 지닐 뿐입니다.
시간은 크게 세 가지 양상, 즉 계속(succession), 지속(durée), 동시성(simultanéité)을 지닙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존립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지각되거나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사건들 간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각되거나 파악됩니다. 여기에서 사건들 간의 관계 자체를 시간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사건들의 관계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게 되면 사건들의 관계를 넘어선 시간 자체를 염두에 두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이같이 시간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결론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해 나가면서 차차 숙고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먼저 일어났다고도 하고 나중에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계속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간 자체의 역능을 인정해서 말하게 되면, 계속이라는 시간의 양상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들에 대해 먼저 일어난 사건이니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니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선후의 문제는 인과성이나 목적성에 관련해 기초가 됩니다. 시간의 계속 양상은 결국 시간의 방향 문제와 연결됩니다. 예컨대 신의 섭리는 시간의 방향으로 볼 때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실현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인이 결과보다는 먼저 있기에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목적이 수단보다 나중에 있기에 수단에서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짚어 둘 것은 시간의 이 계속의 양상은 시간의 양적인 측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의 지속 양상입니다. 지속은 시간의 연속성(continuit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이 단속적이거나 계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지속은 한 치 간격도 없는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계속은 디지털적인 시간의 흐름을 허용하지만, 지속은 오로지 아날로그적인 시간의 흐름만을 허용합니다. 시간의 지속 양상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자기 동일적인 무엇이 성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사건들이 계기적으로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있고 난 뒤 다른 사건이 뒤이어 일어날 때, 그 하나하나의 사건은 나름대로의 지속성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미세한 사건들일지라도 그것을 사건이라고 일컬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은 나름의 지속성, 즉 빈틈없는 연속성을 지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동시성 양상입니다. 동시성의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구축

www.artnstudy.com

한 이후 대단히 난해하고 부조리한 개념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 자체의 개념에 의거해서 보면 동시성은 서로 다른 사건들 간에 그 어떤 연관 속에서의 계속성도 없을 때 성립합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간에 선후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 때 그 사건들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시간의 이 세 가지 양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속성을 지닌 하나의 동일한 사물에게 서로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나의 몸이 지속을 바탕으로 한 동일성을 띠는 가운데 나의 머리 속에서는 사유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와 동시에 나의 위에서는 소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사유 작용을 통해 시간의 지속 문제를 생각하다가 이어서 시간의 계속 문제를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시간의 지속 문제를 생각하다가 이어서 시간의 계속 문제를 사유한다고 할 때, 각각의 생각 자체에 지속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의 지속 문제를 사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동시에 여러분들의 머리 속에서 시간의 지속 문제가 사유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시간이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시간은 대체로 계속의 양상을 통한 것입니다. 선후의 계기적인 변전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시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곱 시에서 여덟 시로 넘어가고, 여덟 시에서 아홉 시로 넘어가는 것 말이죠. 요컨대 시계를 통해 단위의 양으로 측정되는 시간을 흔히 시간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금 간단하게 살펴 본 데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시간은 지속에서 근원적으로 성립합니다. 지속을 함부로 양적으로 분할할 수 없는 것은 그 지속이 지닌 밀도와 강도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저 측정 수단에 의해 양적으로 길이를 분할한다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빛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르고, 그렇지 않은 지상에서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릅니다. 두 시간을 공통된 측정 수단으로 분할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 자체를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독립해서 존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남겨 두도록 합니다. 극미하게 짧은 순간조차도 예컨대 빅뱅에서 말하는 10 초라고 일컫는 우주 발생의 최초의 순간마저도 그 자체 지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만을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www.artnstudy.com